

있고 없고에 매달림은 생각에 얽매이는 노예 되는 일

문현철 교수(47)가 김수환 추기경을 만나고 나서 그 다음날 바로 법정 스님을 찾아간 까닭은 처음 본 김수환 추기경보다, 법정 스님을 가깝게 여겼기 때문이다. 과연 김 추기경을 만나 풀리지 않던 응어리가 법정 스님을 만나고 풀렸을까? “천천히 일러주는 스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추기경님 말씀도 남득이 되었어요. 추기경님과 스님이 주신 공통점은, 이번 일이 ‘뒷날 분명히 큰 에너지로 쓰인다.’는 메시지가 있었어요. 그 사고가 제 삶을 깊이 돌아보게 하는 커다란 전환점이었습니다.”

현철은 법정 스님 말씀을 따라 기도를 열심히 했다. 그러나 한 생 동안 밀어닥친 모든 어려움을 날 날이 짚고 헤아리기에는 힘이 부족했다. 게다가 교통사고 후유증도 적지 않아 오랫동안 해매었다. “세상에서 도망쳐 숨어든 곳이 베토벤이었습니다.” 베토벤 음향기가 비싸다보니 영입이 끝나고 나면 지켜야 했다. 현철은 거기서 삼년 동안 속직 아르바이트를 했다. “스님도 가끔 베토벤 오셨어요. 그때마다 스님이 던진 말씀이 ‘여태 광주에 붙어 있네?’였어요.”

3년 방황 끝에 학력고사 3개월을 남겨놓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들어간 데가 조선대 법대였다. 법정 스님에게 조선대 법대에 들어갔다고 말씀드리니, 스님은 법학을 하는데 왜 사회학이 중요하고, 정치학이 중요하고, 심리학이 중요하지 않느냐? 그 기반 위에 법이 있기 때문이다. 바탕을 닦지 않고, 법학만 한다면 그저 시험공부일 뿐인 죽은 공부다. 특히 철학책은 꼭 읽어야 한다. 사유와 성찰이란 커다란 물줄기에서 법학은 새 밭에 난 피일뿐이다. 무식한 놈이 되지 않으려면 폭넓게 사유하는 능력을 길러야 한다고 말씀했다.

현철은 스님에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광주에서 살다가 아버지 고향인 전남하순으로 내려가게 된 내력, 어머니가 떠난 까닭, 유독 현철을 아꼈던 할머니를 향한 사랑, 고마움, 죄송함을 낱말이 떨어놓으면서 여쭙다. “스님, 다른 사람들은 다 엄마, 아빠라는 말이 자연스러운데 저는 그렇지 않습니다. 친구 할머니가 돌아가셨다고 하면 눈물이 나오는데, 친구 아버지, 어머니 돌아가셨다고 하면 실감이 나지 않습니다. 그런 부모자식 관계도 여는 부모자식과 같은 인연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하고, 대학 1학년 불이었다. 불일암 뒷마루에 앉아 한동안 말없이 조계산 자락을 바라보던 법정 스님. 부모자식 인연도 부모자식이기에 앞서 사람과 사람 만남이다. 인연은 시간이란 체에 걸리진다. 시간 첫 속에 사람의 지로 어찌할 수 없는 길고 짧은이 있다. 모든 부모가 자식 곁에 오래있어서 뒷바라지를 해줄 수는 없다. 부모님이 계시지 않는데 대해 슬데없는 상상을 하지 마라. 부모가 있고 없고에 매달림은 생각에 얽매이는 노예가 되는 일이다. 네 얘기를 객관화시키라고 말씀했다. 그 말씀이 어릴 적 트라우마에서 벗어나는데 큰 도움이 됐다는 문현철 교수.

스님은 삶이란 고통을 견디내는 일이라는 말씀을 늘 하셨다. 중학생은 중학생대로,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다 그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지 않느냐. 겉으로 모두 평온한 삶을 사는 것 같지만, 누구나 내면에서는 견디기 어려운 일상들이 많다. 힘들음을 견디면서 살아내는 일이 사는 본질이라고. “스님은 일상에서 정돈되지 않은 가벼운 말이나 행동, 영글지 못한 습성들을 딱 짚어주셨어요.”

87년 6월 향정이 한창일 때, 현철은 불일암 뒷마루에 앉아서 법정 스님에게 푸념을 늘어놓았다. 대학에 가보니까 별 것도 아니다. 할머니가 여기저기 뛰어다니면서 어렵사리 등록금을 마련해 주셨는데 학교생활에 별 의미를 못 느낀다. 학교를 그만 두버리고 차라리 고시공부를 할까? 아니면 동생들 뒷바라지도 해야 하니까 취직이나 할까? 책도 손에 안 잡히고, 마음이 잡히지 않고 혼란스럽다. 차라리 불교로 개종을 하면 어떨까하는 말씀을 던지시 드렸다. 스님은 빙그레 웃으면서 누구는 청국장을 좋아하고, 누구는 김치찌개를 좋아하지만, ‘전주님 사랑이나 부처님 자비는 풀어보면 모두 한 보따리’ 니 그

날마다 일기쓰는 일은 중요하다
말이나 생각은 날아가 버리지만
글로 정리하면 새로운 생각 떠올라
글쓰기는 나를 찾는 기도वाद 닿아

대로 있으라고 했다. “스님은 ‘기도 열심히 해라. 지금 마음이 잡히지 않는 문제를 떠올리며 백일이 넘도록 마음을 기울여 정성껏 기도해 보아라. 적어도 생각이 하나하나 정리되면서 가다듬어질 것이다.’면서 베토벤 자주 가냐? 물으셨어요.”

그 뒤에 현철이 베토벤에 들었다. 베토벤 이경옥 사장은 마침 네게 연락하려던 참이었다면서 스님이 등록금 고지서 가지고 오라신다. 네가 어렵게 공부하는 줄 알고 도와주고 싶어 하신다고 했다. 1학년 2학기 등록금 고지서가 나왔을 때였다. “스님이 등록금을 졸업 때까지 내어주셨어요. 그리고 2학년 2학기 3학년 때 장학금이 필요한 친구를 몇 사람 추천하라고 하셨어요.” 스님은 베토벤 이경옥 사장에게 따로 일했다. 학생을 추천할 때, 공부 잘하고 못하고나 학과나 학교수준은 관계치 말라고. “그래서 의과대학 다니는 고등학교 후배 한 명과 친구 2명, 전남대 1명, 조선대 2명을 추천했어요. 이경옥 사장은 ‘절대 입 열지마라. 스님 엄명이다.’고 말했다.” 대학에 다니면서 불일에 올라가 스님께 공부 잘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리려고 운을 떼려 치면, 스님은 어느새 다른 말씀으로 돌리곤 했다.



“때가 되면 꼬박꼬박 들어오는 장학금을 앉아서 받기가 너무 송구스러워서, 양말이나 몇 켤레 사드리려고 새벽 일용인력시장에 나가서 일을 했어요. 첫날 일을 하고 나서 돌아오는데 일당을 주지 않았어요. 다음 날 준다고 그 다음 날 가서 일하면 또 다음 날로 미뤘어요. 그렇게 사흘 일을 하고 나흘째 되는 날 새벽에 나갔는데 그 사람이 사라져 버렸어요. 일당을 떼고 말았죠. 제 판에는 스님 양말이라도 사다드리고 싶어서 노가다를 했는데, 그 돈을 못 받고 친구에게 만 이천 원을 빌려서 양말 여섯 켤레를 사다 드렸습니다.”

2학년, 3학년, 해를 거듭할수록 스님은 현철을 대견해 하면서 지도자, 범조인이 사회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글쓰기 중요성을 말씀했다. 공부하기 바쁘는데 왜 여기까지 오느냐? 편지를 하면 되는데, 날마다 일기를 쓰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말이나, 스티치는 생각을 바로 어디론가 날아가 버리지만, 글로 정리해 쓰다보면 새로운 생각이 떠오를 뿐 아니라, 무엇보다도 생각을 정리 정돈할 수 있다. 그렇게 보면 글쓰기는 나를 찾아가는 기도वाद 이어진다. 보다 넓은 사고를 키우기엔 시간이 짧다. 세상을 이끄는 리더가 되려면 사회개혁론을 비롯한 세상 공부를 많이 해야 한다며 공부하는 즐거움에 대해 말씀했다. “스님은 당시 대학 때 일기가 대학노트 몇 권이 있다고 하면서 일기를 왜 밤에만 쓰려고 하느냐. 쓰고 싶을 때 쓰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저는 일기를 아침에 씁니다.”

현철이 법 공부를 제대로 하기 시작한 때는 대학 4학년이 다 돼서부터다. “스님은 제 말씀을 깊이 있게 들어주셨어요. 덕분에 마음병이 치유되었어요. 그리고 나니까 법사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그동안 켜켜이 쌓였던 여러 문제가 스님이 불일암을 떠나시기 전까지 다 정리되었다. “스님에게 입은 은혜는 등록금보다도 삶이 정리 정돈된 일이 더 큼니다. 모든 문제가 길고 짧은 시간 체에 걸려졌습니다. 스님이 제게 주신 가장 큰 유산은 긍정과 시작 그리고 희망입니다. 제가 대학 4년을 마치고 나니까 스님은 강원도로 들어가셨어요.”

2003년 광주에서 맑고 향기롭게 스님 강연회가 전남예술회관에서 열렸다. 문현철 교수는 거기서 스님을 뵈고 명함을 드리면서 “스님, 이제 제 밥벌이하고 사회인으로 자리 차지하고 있습니다.”고 말씀드렸다. 스님은 명함을 천천히 들여다보시고는 참 흐뭇하시면서 초당대학교... 음, 좋은 학교지. 이제 진짜 공부 한 번 해봐라. 그러셨다. “그게 스님과 마지막이었어요.”

현철은 군인이나 법관, 외교관을 꿈꾸었지만 할머니는 어려서부터 늘 선생이 되라고 말씀했다. 그 말씀이 귀에 뿌리를 내린 까닭일까. 대학교수가 되었다. “조선대 법대에서 대학원 석사, 박사과정 내내 법학과 조교를 했습니다. 개학을 앞두고 전북에 갔

물 없이도 할 수 있는 휘나햇 온열경영

무릎찜질, 허리찜질, 족욕, 좌욕, 반신욕, 사우나, 한번에...OK!

NAVER 검색창에 **휘나햇 온열요법** 을 검색하세요

2011년형 여름 신상품 특별 할인 판매



휘나햇은 30여종 광물질 (특허특제 10-096707 호 발명의명칭:세라믹전기발열제 및 그 제조방법) 특수제작한수퍼블랙드스크 B.C.P 내장하여 450도로 가열할 때 발생하는 원적외선, 음이온, 온열이며 일반면상발열체와는 비교가 안되는 획기적인 기능을 갖는 휘나햇 반신욕기는 특별할인된 가격으로 한가정에 반드시 한 대 꼭 보급될 것입니다. (2020년까지)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계좌번호: 국민 404601-01-046107 예금주: (주)휘림건강 판매원, 제조원: (주)휘림건강 * 대리점, 취급점, 영업사원모집

암과 현대병을 쉽게 다스리는 방법

당중 황기 식용 177호 변비 생리통 특효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건강법

"세포의 생성을 촉진하고 혈액을 깨끗하게 하는 삼백초 효소 발효액은 심각한 환경오염에 노출된 인체에 건강을 되찾아주는 최고의 처방이다"

노화와 난치병을 이기는 삼백초의 놀라운 효능! 변비, 숙변, 생리통을 없애는 날마다 기본 좋은 건강 비결! 간질환, 당뇨, 신장질환, 동맥경화, 고혈압, 심장병, 부인병, 비만치료!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희귀미네랄의 보고 삼백초. 삼백초에는 활성산소를 없애주는 게르마늄과 납성 성기 등에 증대한 작용을 하는 아연, 기운을 북돋는 유기동이 들어있다. 삼백초를 꾸준히 섭취하면 만성피로가 사라질 뿐 아니라 남자의 스테미너가 넘치고 기운이 솟는다!

황토 삼백초 효소 발효관리법
부림출판사 | 검색번호 177호 | 값 5,000원

문의: 070-7804-5358

계좌: 농협 170118-56-120962 예금주: 강봉석

모리다 요시오 박사와 의사 이토 오사무의 치료 사례

- 25,000명을 임상실험한 결과 밝혀진 효소의 놀라운 효과

반건강 상태는 1개월만에 완치, / 정맥이 되살아 난다 / 불임이 치유된다 / 기미가 사라진다 / 속취가 없어진다 / 위궤양이 치료된다 / 무릎이 없어진다 / 치질이 치료된다 / 탈모가 치료된다 / 류머티즘 관절염이 치료된다...

100% 국내산 참외나무 진액 참외 골드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신 것 만큼 참외는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휘림참외물, 이제 안심하고 편안하게 드실 수 있습니다.



▶꽃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물을 찾아 2대째 이 땅의 오호 주산지를 찾아 해마다 사람이 지하 250m 게르마늄 광천수를 이용해 휘림참외를 만들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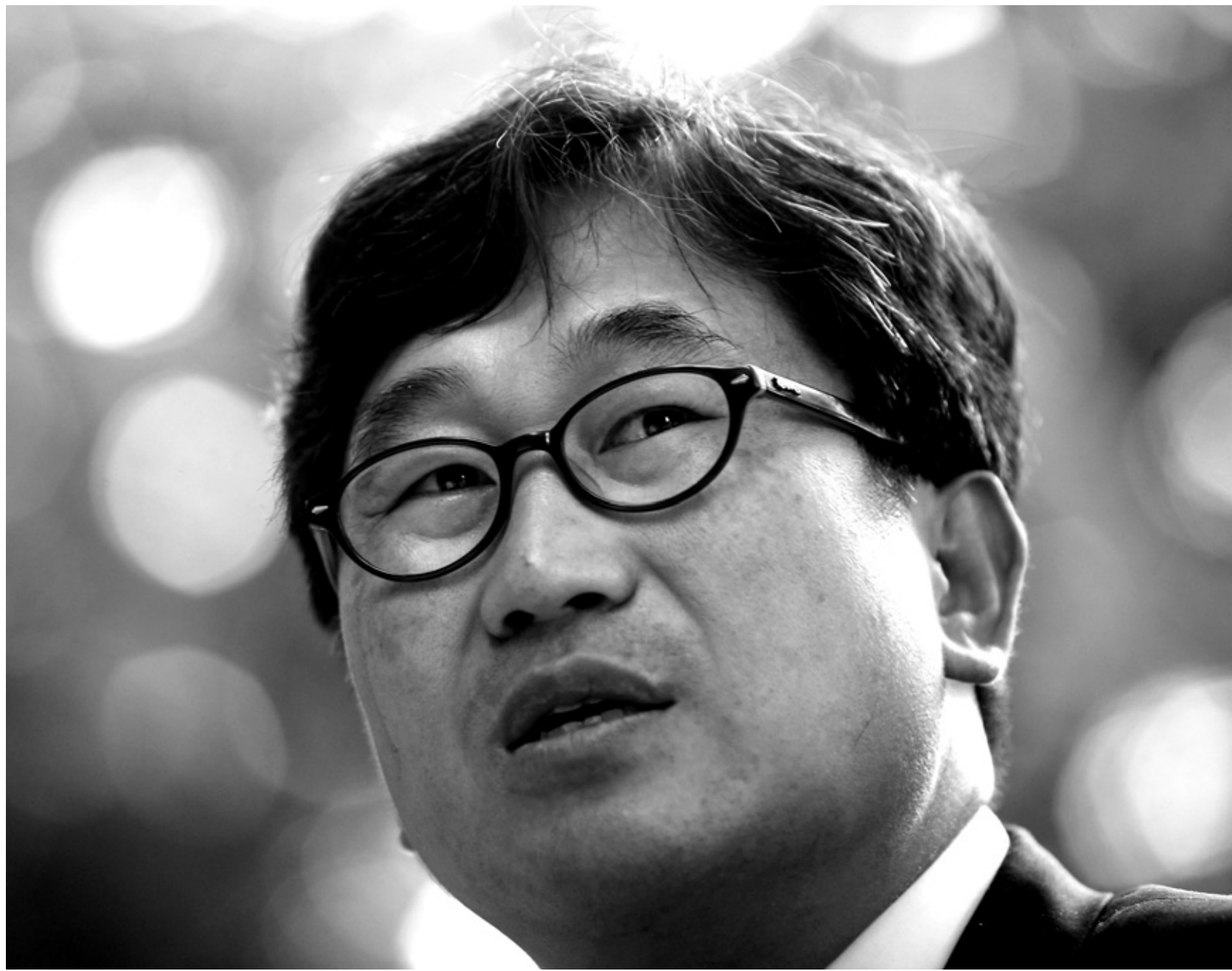
▶꽃에 대한 솔한 소문이 있습니다.

그 소문을 넘어서 국내 최초로 꽃 산업특구를 탄생시킨 사람이 이 땅에 정착한 참외 문화를 만들기 위해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위해

약식동원의 참다운 생활을 휘림 참외물을 통해 경험해 보십시오

문의: 02-875-0600
www.hkshop.co.kr



는 어떤 대학에서 갑자기 연락이 왔어요.” 전공인 행정법 6시간을 맡을 뜻이 있느냐면서, 광주에서 차로 2시간 걸리는데 일주일에 세 번을 가야 할뿐더러 강의 수당도 너무 짜다고 했다. 문헌철 교수. 처음 하는 강의, 실습비를 내고라도 해야 할 판인데 기꺼운 마음으로 하겠다고 선포 대답했다. 98년 3월 학기. 여섯 시간 가운데 세 시간은 야간 강좌였다. 야간 강좌는 학생이 세 명 밖에 없었는데 개강 때 학생이 한 명도 오지 않았다. 둘째 주에 한 명이 왔다. 문헌철 교수 한 명이 한 명이라고 생각하고 세 시간 수업을 뽀뽀하게 소화했다. “신바람 나서 강의를 해야, 그 다음 학기에 세 명이 오고, 다섯 명이 오고, 열 명이 오지요. 셋째 주 강의를 막 시작하려는데 정전이 되어버렸어요. 지리산 자락이라 번개가 자주 치기 때문에 정전이 잘 되요. 그래서 넷째 주부터 랜턴을 세 개 가지고 갔어요. 불이 나가도 진도는 나가야 하니까. 마침 그날도 비가 많이 왔습니다. 랜턴 두 개는 질판을 향해서 켜 놓고 한 개는 뒤에서 학생을 향해서 켜놓고 강의를 했어요.” 열정으로 뚫릴 뚫릴 탓일까. 2학기, 9월 학기에 강의가 열여덟 시간으로 세배가 늘었다. 그 다음 99년 1학기에 서른여덟 시간으로 늘더니, 2000년에는 사십팔 시간이 됐다. 그 때 문 교수 별명이 강의 재벌이었다.

문헌철 교수가 연구하는 분야가 재난, 재해를 포함한 국가 위기, 위협으로부터 주민 목숨과 재산을

청년의 말 귀 기울여 준 법정 스님

스님 덕분에 마음병 치유한 청년

스님이 긍정과 희망에너지를 심어준

문 교수 꿈은 온 국민 안심하는 세상

보호하는 법과 행정시스템. 휴머니즘이다. 위협에는 전쟁이나 테러 같은 군사상 위협뿐만 아니라 재난, 재해, 각종 전염병이 다 들어간다. 박사학위 논문 제목이 <방재 행정법 체계화에 대한 연구>다. 우리나라는 재난위기관리시스템 법체계 선진국이다. 해외에서도 배우기가 할 만큼. 그러나 주민보호시스템은 현장 주민들이 적극 참여하고 협조할 때 완성된다. 문제는 민방위 훈련이나 재난안전 한국훈련 때 주민들이 적극 동참하지 않고 옆집 불구경 하듯 하는데 있다.

“일본이나 이스라엘, 미국은 재난, 재해로부터 주민보호시스템이 가장 완벽한 나라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런 일본 쓰나미가 일어났을 때, 후쿠시마 현 두리데 있는 오가와 초등학교에 쓰나미 경보가 울렸습니다. 쓰나미 경보가 울리면 무조건 높은 데로 가

야만 합니다. 오가와 초등학교 바로 옆에는 대나무가 우거진 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디로 대피할 것이냐를 놓고 선생들끼리 난상토론을 벌이다가 학교 앞에 있는 내를 건너 대피하기로 했습니다. 물이 그리로 들어오는데. 전교생 85명이 모두 죽었습니다. 바로 옆에 있는 산으로 30M만 올라갔어도 다 살 수 있었는데. 일본사회가 위기관리시스템 완벽을 자랑했으나, 일반 사람들 실컷까지 전달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문헌철 박사가 군사학 교수라고 했을 때 스님 장학금으로 공부를 한 사람이 하필이면 군사학교수일까? 싫어 고개를 가웃거렸다. 그러나 돌이켜 생각해 보니 온 국민이 마음 놓고 살 수 있는 까닭은 국민보호시스템인 군인이 지켜주기 때문이 아닌가. 우리 마음을 편안히 해주는 일이 종교가 할 일이라면, 실제 사람들이 마음 놓고 다리 쪽 뻗게 만드는 울타리는 군대를 비롯한 사회안전망이다. 법정 스님이 심어준 긍정과 희망에너지 덕분에 일어난 문헌철 교수. 온 국민이 긍정과 희망에너지를 품고 마음 놓고 사는 세상을 꿈꾼다.

글=법정 스님 자취를 더듬는 변택주 einew@hanmail.net 사진=마음을 담는 사진장이 근승량

현각 스님의 禪心으로 만나는 세상



동국대 선학과 교수

일기일경

교정에 제일 먼저 가을 소식을 알리는 전령이 있다. 운동장 축대를 타고 절지동물(節肢動物) 마냥 오르는 담쟁이 덩굴이다. 그들은 만유인력에 저항하며 위로 위로 올라간다. 이제 성장을 멈추고 붉게 물들어 가는 모습에서 고요를 발견하게 된다.

발견이라는 단순한 단어는 형이상학적인 목표를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형이상학적인 세계까지 추구할 수 있는 힘을 내재하고 있다. 마치 어둠이 공포로만 다가오는 것쯤으로 알았던 사람이 어둠의 미덕이 안식과 평화라는 것을 알았을 때의 희열 같은 신비로움이 아닐까. 어둠을 아랑곳 하지 않고 밤을 지키는 귀뚜라미는 진정 안식과 평화를 누리는 주인공일 것이다. 이따금 그들과 벗을 하노라면 일에 능률이 배가 되고 밝음의 번잡함에 비해 더할 나위 없는 한가함을 느끼게 된다. 여기에 무슨 긴 사슬을 늘어놓을 필요를 전혀 느끼지 않는다. 고요는 고요와 경쟁을 벌이지 않고 아름다운 또한 아름다움과 경쟁을 하려 하지 않는다. 절대 고요와 절대 아름다움은 그들의 극치만이 있을 뿐이다. 이렇게 자연이 주는 메시지는 천태만상이다.

선어 가운데 ‘일기일경’이란 말이 있다. <벽암록> 제3, 11, 57칙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일기(一機)란 선사가 선을 배우는 학인을 대할 때 자기의 사상을 동작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소위 접득수단(接得手段)이라고 한다. 즉 눈썹을 치켜 올리거나, 눈을 깜박인다거나, 돌아보거나, 살피보거나, 피식 웃거나, 껍 소리 지르거나 하는 것이다.

한 두 사례를 들어 보자 한다. 경허 선사의 제자 해월(慧月; 1862~1937) 스님이 팔공산 파계사(把溪寺)에 머무르고 있을 때 일이다. 하루는 객승이 찾아 왔다.

“그대는 뭇 하러 왔는가.”
그러자 객승이 대답했다.
“참선하려고 찾아 왔습니다. 그리고 큰스님의 시절인연을 보려고 왔습니다.”

객승의 대답에 해월 스님이 대답 물었다.
“참선해서 무엇 하려고?”

“그거야 부처가 되려고 그러지요.”

“참선은 앉아서 하는 건가, 서서 하는 건가.”

“물론 앉아서 하지요.”

그러자 해월 스님은 깔깔 웃으면서 말했다.
“그놈의 부처는 다리 병신인 모양이지. 앉아서만 있지.”

어리둥절해진 객승은 해월 스님에게 물었습니다.
“좌선은 앉아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것은 앉아만 있는 것이지 부처되는 작업은 아닐세.”

<유마경> 제자품에서 ‘몸과 마음이 움직이지 않는 것을 좌선이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진등록> 제 14권에 조주대전(趙州大禪) 선사가 나온다. 대전선사는

“어느 것이 그대의 마음인가.”

“이야기 하는 것이 그입니다.”

이에 할(喝)을 당하고, 자리에서 쫓겨났다. 심

여일을 지나 대전선사가 다시 물었다.

“먼저 대답이 틀렸다면 그 밖에 어떤 것이 마음입니까?”

석두가 대답했다.

“눈썹을 번득이거나 눈을 깜박이는 일(揚眉瞬目)을 제하고서 마음을 가져 오나라.”

“가져올 마음이 없습니다.”

“원래 마음이 있는데 어째서 없다 하는가. 마음이 없다고 하면 모두가 비방하는 말이 된다.”

대전이 이 말에 크게 깨달았다.

일경(一境)은 선사가 자기의 사상을 외계의 사물을 빌어 표현하는 것을 말한다. 곧 꽃을 들어 보이거나, 동그라미를 그리거나, 달을 가리키거나, 지팡이를 세우거나, 물을 가리키거나,

일기(一機)는 선사의 동작이며

일경(一境)은 선사의 표현이다

“이름 받기 전 네 모습이 무엇이냐”

소리를 듣거나 하는 행위이다.

<오동회원> 권9에 향염지한(香嚴智閑) 선사가 나온다. 지한은 위산영유(魏山靈遊)의 제자로서 스승의 가르침을 받고도 오랫동안 깨칠 수가 없었다. 어느 날 스승은 마지막 소리로 향염의 마음에 불을 지켰다.

“향염아, 부모님으로부터 향염이라는 이름을 받기 이전의 네 모습은 무엇이냐?” 이 엄청난 질문에 앞뒤가 꼭 막힌 제자 향염은 평소 공부하던 책을 모두 불살라 버렸다.

“이 생애 불교를 공부하여 깨치는 것은 이제 그만두고 대중 시봉이나 하며 후원에서 편히 지내야겠다”고 다짐하고 위산의 곁을 떠났다. 그 후 여기저기를 돌아다니다가 남양해종국사의 유적지에 머무르게 되었다. 어느 날 운력을 하다가 돌맹이를 울 너머로 집어던졌는데 그것이 대나무에 부딪치는 소리가 기원이 되어 크게 깨칠 수 있게 된다.

물의 속성은 부드러운데다. 그러나 형태는 고정되어 있지 않다. 어느 그릇에 담느냐에 따라 그 모양이 각양각색으로 나타나듯이 광대무변한 마음은 어떤 기(機)와 경(境)을 만나느냐에 따라 불가사의한 힘이 솟는다.

30년 전통의 멋과 아름다움이 있는 주얼드림 은(銀)의 모든 것 총집합

염주, 단주, 금강저, 반지, 목걸이, 핸드폰줄, 자수정, 호안석, 백옥, 청옥



1번 7~7.4mm 86,000	2번 10mm 109,000	3번 호안석 8mm 39,600	4번 청옥 10mm 54,000	5번 반야반지 34,000
6번 20,500	7번 39,000	8번 30,000	9번 32,000	10번 20,500
11번 20,500	12번 61,000	13번 20,500	14번 48,000	15번 62,000

본사 공장 및 영업부 : 경기도 고양시 대자동 793-2번지
031)969-9495 / 070-4128-9495 / 011-441-9495



www.jeweldream.co.kr • 책자(카드로그)가 필요하신 분은 전화로 신청해주세요.
농협 356-0460-2307-43 예금주 : 주얼드림



2012년 불교달력 특별할인(8월1일~9월30일) 판매

삼보불교카렌다에서는 「2012년 불교카렌다」를 특별할인 기간(8월1일~9월30일 까지)에 주문하시면 고급스럽고, 질 높은 50여종의 카렌다를 가장 저렴하고 신속하게 보급 해 드립니다.



※다양한 종류(벽걸이, 차걸이비닐캘, 미니스프링, 미니수첩, 탁상, 법요집책자, 각종 불교용품 등)의 카렌다 내용과 이미지는 삼보불교카렌다 홈페이지(www.samboca.com)에서 확인 또는 전화주셔서 주소를 알려주시면 카다록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불교카렌다 제작 전문업체-

삼보불교카렌다

다음이나 네이버 검색창에서



통합검색

삼보불교카렌다

검색 하세요

대표전화. 031) 732-9905 | Fax. 031) 732-8972